

베트남 과일,야채 가격 인상... 중국 재개방 영향



지난달 베트남에서 두리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과 중국의 경제 재개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다른 과일의 가격도 전년 대비 세 배나 올랐음 것으로 조사됐다고 Vnexpress지가 19일 보도했다. 중국 경제는 3년간의 코로나 방역 후, 1월 8일부터 본격적인 재개방이 시작됐다. 이후 두리안 도매 가격은 1kg당 190,000동(미화 8달러)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리안만이 아닌 용과 가격은 18,000~38,000동, 커스터드 사과는 50,000~60,000동, 잼푸르트는 18,000~25,000동으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 재개되면서 현지 제철이 아닌 과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급

흥한 것으로 봤다. 또한 고구마, 토란, 수박 등 다른 농산물의 가격도 1월에 급격히 상승하여 고구마는 2021년 1월에 비해 50% 상승한 킬로그램당 14,000동(VND)에 판매됐다. 이는 중국이 문을 다시 연 이후 베트남 고구마 수출량이 증가하고 더불어, 주 생산지인 중부 고원 지역의 고구마는 현재 비수기여서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향후 1~2개월 동안 가격이 계속 급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부개별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부의 농산물 가격이 코로나 발병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품도 많다는 것은 현지 무역과 현지 가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

만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구매하여 중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의 양은 지난 12개월 동안 20~50% 증가했다. 베트남 과일 협회 사무총장 당퉁응웬은 베트남 농림수출물의 19.2%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말하며, 그는 북극 이웃 국가가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이후 중국 시장을 위해 베트남의 가장 잠재력이 높은 수출 시장으로 꼽았다. 농산물개발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베트남에서 약 10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으로의 수출은 일반적으로 베트남 전체 과일 및 채소 수출의 절반 이상일 정도로 큰 시장이다. (Vnexpress 2023.02.13)

베트남 국적항공사들 지난해 줄줄이 적자... 유가·환율 급등 영향

베트남항공과 민간 LCC(저비용항공사) 비엣항공(Vietjet Air) 등 베트남 6개 국적항공사들이 지난해 유가 및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줄줄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엣항공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베트남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70조5780억동(29억9380만달러)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했지만 2조6250억동(1억1130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70% 수준에 불과하고, 적자 규모는 줄었지만 3년 연속 적자다. 이 때문에 베트남증권거래소(hoSE · 호세)는 베트남항공의 상장제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세 규정상 지난해 연결재무제표가 손실이면 3년 연속 손실이기에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장제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31일 기준 베트남항공(자회사 제외)의 누적 손실액은 34조2000억동(14억5800만달러), 자본금은 1

이너스(-) 10조2000억동(4억3500만달러)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비엳젯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39조3420억동(16억6880만달러)으로 206% 증가했지만, 순손실도 2조1660억동(9190만달러)으로 역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뱀보항공(Bamboo Airways)과 신생 비엳트래벨항공(Vietravel Airlines)은 아직 재무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지만 적자를 낸 것으로 전해지며, 바스코(Vasco)와 퍼시픽항공(Pacific Airlines)은 베트남항공 회사보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자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국적항공사들의 지난해 손실은 유가 상승 및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영향 때문이다. 지난해 항공유(Jet A1) 평균가격은 배럴당 130달러로 전년의 72달러에서 두배가량 올랐으며, 작년 중반 한때는 160달러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또한 베트남항공은 지난해 환차손으로만 2조2470억동의 손실을 입



있고, 비엳젯항공은 5700여동의 손실을 입었다. 국적항공사들은 지난해 외국인 1100만명, 내국인 5500만명 등 총 6600만명의 승객을 실어날랐다. 이중 외국인 승객은 전년보다 22배 증가했지만 2019년의 30% 수준에 불과했고, 내국인 승객은 전년대비 3.7배 증가하면서 이 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국적항공사들과 달리 항공서비스 업체들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다. 대신 공항항공서비스(Sasco)의 지난해 세전이익은 전년대비 77배 증가한 2300억동을 기록했고, 사이공지상

서비스(SGN)는 1720억동으로
3배 이상, 사이공카고(SCS)는
6960억동으로 두자릿수 증가
했다. 전국 22개 공항을 운영
하는 베트남공항공정사(ACV)의
2022년 매출은 전년보다 1조가
량 증가한 13조9000억동(5억
6960만달러), 세전이익은 8조
3000억동(3억7330만달러)로
전 1조동 이상 증가했다. ACV
의 지난해 총 여객수는 99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8% 증가했
고, 총 화물량수는 65만8000편
으로 125% 증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13)

"싱글맘 많아 통했다" CJ 또 홈런 베트남서 난리난 이 영화



CJ ENM이 만든 베트남 가족 코미디 영화 '나 후(Nhà Bà Nù'의 가족)가 베트남에서 연대 흥행 신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이날 CJ ENM측 발표에 따르면 CJ의 베트남 법인 CJHK엔터테인먼트가 기획-투자-제작한 이 영화는 전람까지 4237억동(약 228억위안)의 극장 매출을 올렸다. 베트남 전염유(1월 21일~26일)이든날 이 지난날 22일 개봉해 21일 만에 올린 성과다. 주연-감독을 겸한 베트남 스타 쩌안미(전작 '보-가'(Bo-Gia-야빠 미안해))(2021)로 서는 기존 흥행 1위 기록(4269억동)을 불과 2일 만에 갈아치울 기세다. '나 후'는 12일

대 흥행 신기록을 경신한다. 이런 깜짝 성적 덕에 이 영화는 올해 전세계 흥행 순위에서도 8위권에 있을 것이다(11월, 전세계 박스오피스 사이트 '박스오피스모조' 집계). 베트남 영화로는 고무적인 기록이다. 현지 영화계가 꼽은 '나 배두아의 흥행 비결은 공감감이 쉬운 가족 단 세대 갈등이라는 주제, 첫 단 두 우들의 고된 연기력, 명대사가 탁월 등 소설 미디어에서(SNS)에서 입소문을 탄 점 등이다. 올해 베트남 설 연휴가 징검다리 주말을 더해 열흘간 이어진 것도 한몫했다. 제작진은 이 같은 긴 휴가를 내다보고 1년 전부터 가족 관객을 겨냥해 영화를 기획·개발했다고 한다. CJ ENM 베트남 법인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현지 제작-투자한 작품에 제도로 개봉 못 보고 지난해, 올해 설 연휴는 다들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했다"며 "전반은 아내 하리원이 베트남계 한국인 가수여서 한국에 우호적인 데다, 서민 정서를 잘 표현하는 베트남 최고 흥행 스타다. 친한 가족영화·국제시장을 만든 CJ ENM이 그와 손잡으면 참신한 가족영화를 만들 수 있더라"라"고 했다. 여성 주수들이 희망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담은 한국 영화 '이공 삼철'(현지 제목 *Điền Ước Cuối Cửa Tủ Nhân 2027*)은 지난 7월 개봉해 첫 주당 흥행 1위에 올랐다. CJ 엔터테인먼트는 "베트남은 싱글맘이 많은 데다 많은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며 집안 경제를 책임지는 모계 중심 사회"라며 "싱글맘 두 여사를 중심으로 웃기다가 울리는 흥행 코드가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영화 수출 실적 순위에서 베트남은 2019년 10위였으나 2020년 5위로 급상승했다. 지난해 9월엔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로또를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육사오가 반도'(2020)의 종전 성적(누적 관객 120만명)을 제치고 흥행 기록(225만명, 누적 매출 1760억동)을 세우기도 했다. '극한직업' 리메이크판이 지난해 현지 개봉한 걸 비롯해 '행' '선생 김봉두' '블라인드' '괴수 스캔들' '미녀는 괴로워' 등 한국영화와 현지판 리메이크도 잇따랐다. 아

시아 지역의 한국영화 주요 수출국이다. CJ ENM이 투자-배급한 영화가 흥행 기록을 세운 건 수상한 그녀(베트남판 '내가 너 할래다')의 흥행 1위 기록 이후 8년만이다. CJ ENM 베트남 법인 관계자는 “한국영화 리메이크에 흥행하면 베트남인들이 시사회에 자신들만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서”라며 누처럼 베트남 현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내세웠다며 “과거 한국영화는 할리우드 대작이나 베트남 영화를 주로 보던 시장이었는데 최근 자국영화 선호도가 높아진다. 최근에는 우리가 제작한 태국-인도네시아 영화도 베트남 시장에 소개했다. 새롭고 좋은 영화를 받아들이는 베트남 관객 저변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CJ ENM은 2011년 영화 ‘뽀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20여편 현지 영화를 제작하고 80여편의 한국영화를 배급했다.

세계 1 위 최초, 최고, 최다

문구 생활 · 편의 Shop

“문구스토어 사업주를 모십니다.”

- Alpha(한국) 스토어
- 문구 생활 편의용품 판매 매장운영 경험자
- 50평이상 매장 운영하실분
- 물류 체인사업 모집

연락처 TEL : +82_2_3788-6175 / H.P : +82_10-3829-9380
e-mail : david@alpha.co.kr / kakaotalk : hoanni21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DAILY AD



고대

E. info@chaovietnam.co.kr
M.079.283.2000 | T. 028.3511.1075/1095



싌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카카오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신자오베트남 부설 대정컨설팅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

베트남 투자자문, 법인설립, 노동허가, 각종 라이선스, 거주증, 비자등

Tel : 083 568 1000(KR) / 0906 822 374(VN) E-Mail : kksjeon@gmail.com

하노이 도심서 벤츠 승용차 '원인불명' 화재...공안 조사



하노이 도심에서 주행 중이던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 공안이 조사에 나섰다

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11일 오전 6시 30분경 하노이 끼우치이 구역 도로에 있던 4인승 벤츠 승용차에 갑자기 불이 붙었다. 사고 당시 동명상을 보면 불이 난 차량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로 확인됐다. 운전자와 동승했던 부부는 불이 나자 황급히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으며 공안과 현장에 있던 행인 등이 소화기로 20분 만에 불을 껐다. 현지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Vnexpress 2023.02.12)

베트남 총리,
브루나이 국왕과 회담
"디지털경제 구현 공조"



베트남과 브루나이가 디지털 경제 구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12일 vnexpress가 보도했다. 전날 밤 전 진 베트남 총리는 전날 하사나 누를 이만 왕궁에서 하사나 불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전 총리는 이와 함께 길을 비롯한 베트남 농산물 수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브루나이 기업들이 베트남

남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면서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에 불기어 국방은 무역, 투자, 교육, 농업과 관련한 양국의 교류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양국 지도자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상에서 평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단합해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베트남 총리가 브루나이를 공식 방문한 것은 16년 만이다. 양국은 지난 1992년 2월에 수교했으며 2019년 3월에 '포괄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했다. 지난해 교역액은 7억 2천580만 달러(약 9천221억 원)로 전년 대비 13.4% 늘었다. 브루나이는 베트남에서 157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총 투자액은 9억7천100만 달러(약 1조2천336억 원)에 달한다.

(Vnexpress 2023.02.12)

빈패스트, 독일 에온그룹
(E.ON)과 유럽내 전기차충
전소 구축 나서...



베트남 토종 전기차제조업체 빈팩스트(VinFast)가 독일 에너지기업 에온그룹(E.ON Group)과 손잡고 유럽내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나선다고 10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이날 빈팩스트에 따르면, 에온그룹의 전기차 충전설루션업체 에온드라이브(E.ON Drive)와 유럽내 빈팩스트 충전인프라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3개국의 빈팩스트 매장내 충전소 및 공용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매장에 150kW급 AC/DC 충전기 200개가 설치돼 빈팩스트 전기차 고객에게 서비스된다. 현재 빈팩스트는 독일 쾰른,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뮌헨, 오버하우젠 등 5곳,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3곳, 프랑스 파리 등 유럽에 총 13개의 매장을 확보하고 있다. 에온그룹 자회사 반데르본(Vandeborn)은 올초 네덜란드 빈팩스트 매장에 충전소 구축을 이미 완료했다. 호 탄 호영(Ho Thanh Huong) 빈팩스트 유럽시장 총괄대표는 “에온드라이브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 역량은 유럽을 넘어 전세계로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우리의 목표에 전기차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티아스 위처(Mathias Wiecher) 에온드라이브 사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빈팩스트와의 협력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의 충전솔루션을 통해 빈팩스트가 유럽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전기차기업이 되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사)한국수출입협회 2023.02.20

[사이드비나 2023.02.10]

한국 딸기 대잔치

'나들이 딸기 맛을 알아?'

알티킹

설향

백설

금실

딸기 구입 문의

연락처 : 091 854 0463

카톡아이디 : KG 531




Grab 어플 검색창에서 '건강상회'
'락토피트'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
 접속-주문-배송-결제 편리하게 이용
 Grab Mart 운영시간 : 월-토
 09:00am~19:00pm



베트남 공식 런칭 이벤트!
전제품 10% 할인



건강상회



079 386 7055



ID : hyggelab

한국 교민을 위한 건강 기능식품 전문점
 건강상회 | Hygee Life Co., Ltd with Grab Mart |
 Show room-Saigon Pearl

장내 미생물 균형, 장건강, 소화 기능 개선, 면역강화 기능에 탁월한 효능

대한민국 1위
생유산균 브랜드

정식수입 공식유통 개시!
 병장컨테이너 운송





슬림



골드



키즈



콜라겐

천안시티FC, '베트남 유망주' 안·히에우 동시 임대 영입



천안시티FC는 베트남 연맹별 대표 출신인 공격수 부민 히에우(21)와 수비수 오우옌 안(23)을 임대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우옌은 충청부스가 보냈다. 베트남 축구구의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는 호앙 아인인절라(하글) 출신인 양 선수는 HAGL 유스팀에서 시작해 연맹별 대표팀을 거치며 프로축구 무대에까지 경합했다. HAGL은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 합작해 체계적

인 유스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며 유망주 육성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안은 박사는 감독의 눈에 띄어 2020년 베트남 U-22 대표팀에 발탁되며 가치를 인정받았다. 히에우는 20세의 나이로 U-23 대표팀에 선발됐고, HAGL 사수 최연소로 1군 데뷔에 이어 대표팀 일원까지 해내며 '제2의 콩푸엥'으로 평가받았다. 두 선수 모두 180cm의 준수한 체격에 멀티 포지션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바남

(충청뉴스 2023.02.12)

코이카, 베트남 지뢰·불발탄
제거 지원해 평화마을 조성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베트남에서 지뢰와 불발탄 제거를 통한 평화마를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코이카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력해 베트남 중부에 있는 빈딩성, 팜응이이성, 후예성 등 3개 성에서 오는 2026년까지 한-베트남 평화마를 조성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및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를 구축하고, 국가 해소와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측에서 2천500만불(약 317억원)과 베트남 측에서 800만불(약 101억원)을 부담한다. 코이카는 먼저 사업 대상 지역 정부의 지뢰행동(지뢰 및 불발탄의 사화·경제·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활동) 전략 및 절차 수립을 지원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우선순위 토지 오염 조사 및 제거를 수행한다. 이어 지역의 지뢰행동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뢰·불발탄 및 기타 위험 인식 활동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 지역의 생존자 및 장애인 지원 전략 기획 수립과 정보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생존자 및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그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뢰·불발탄 등 오염 제거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산 및 판매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농산물 수확 후 관리 및 판매를 위한 농업 대출 지원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실시간 농업기상 정보 제공을 위한 농촌지도 시스템 개발 운영, 지뢰행동 기반 자연자본 활용을 위한 혁신 솔루션 수립 및 이행 등의 사업을 한다. 이밖에 홍수나 폭우 등 재해에 대해 복원력이 있는 주택과 보건소 설계 및 건축, 위험 지도 구축 등의 사업도 한다. 베트남 측은 사업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적, 법적 편의를 제공하고, 현지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지원한다. 실제 지리·불발탄 제거 작업은 베트남 국방부와 공병사령관이 센터장을 맡은 국가지뢰해동센터(VNMAC)가 담당한다. 이 사업은 앞서 2016~2021년 진행된 베트남 지뢰·불발탄 통합 대응 역량 강화사업(2천만불·약 254억원)의 연계 사업이다. 베트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25년까지 80만ha의 오염 지역 지리·불발탄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빈당성의 40.9%,

(한국경제 2023.02.12)

강원도 관광재단, 베트남 관광객 유치 팸투어 진행



사 하노이지시와 공동으로 베트남 시장을 겨냥해 도내 스포츠 상품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을 찾는 겨울관광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해 무릉별무원지의 레포츠 액티비티 시설, 평창의 스키 리조트 답사와 사계절 썰매장 등 동계 레포츠 시설을 중심으로 일정을 진행하고 다양한 관광지와 한류 관광지도 소개회가 가능한 신규한 관광지를 추가 홍보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일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초청된 인원은 한국관광공사 하노이지사가 선정한 2022년 우수여행사와 베트남 국영방송 VTC 등의 언론인들이다. 원문과 관광포바 케팅 실장은 “앞으로 더 적극적인 해외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2023.02.12)

김관영 지사,
13~19일 베트남 · 인도네시아 방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3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12일 전북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김 지사는 베트남 하노이, 다락성의 전북 농수산물 수출

이러는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인도네시아의 한인상공회의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 통상네트워크를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전북일보 2023.02.12)

(전북일보 2023.02.12)

백석대, 베트남 하노이에 유학접수센터 개소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 소재한 한베에듀 유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학원 내에 유학접수센터를 개소했다고 12일 대진일보가 보도했다. 백석대는 유학접수센터를 거점으로 베트남 협력대학들과의 교류 추진, 유학생 유치홍보 및 서점접수 등 국제교류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에 태권도 문화교류를 진행

하고 나아가 태권도 엘리트 교육을 위한 유학생 유치 업무도 병행할 예정이다. 백석대 이계영 대외협력부총장은 "한반도에 유·대학생은 입국할 모두가 젊고 열정이 넘치며 베트남의 교육, 사회, 문화 등 많은 분야에 정통하다"며 "백석대학교의 베트남 교류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2023.02.12)

